http://dx.doi.org/10.20880/kler.2018.53.3.49

학생 질문을 통해 본 어휘 양상 교육의 한 문제

김중수 감천중학교 교사

I. 서론
II. 학생의 질문 분석
III. 어휘 양상 교육을 위한 시사점
IV. 결론

I. 서론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 능력의 신장이다(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 외, 2014: 59). 구본관 외(2014: 27-29)에 따르면 어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중의 어휘 능력이 서로 다르므로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둘째, 의도적인 학습으로 2차 어휘의 양과 질을 늘려주기 위해, 셋째, 개인의 어휘 능력을 의미 이해, 표현과 활용, 앎의 다양한 측면 등에서 질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 넷째, 어휘에 담긴 문화나 사고, 의식 등을 폭넓게 교육하기 위해서이다.

국어과에서 어휘 교육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구본관 외(2014: 23-24)에 따르면 첫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휘의 체계를 논의하는 것, 둘째, 방언, 은어, 속어, 속담, 관용어 등 어휘의 양상을 논의하는 것, 셋째, 동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 넷째, 바르고 정확한 어휘 사용과 같은 어휘 규범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어휘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고유어에 대한 사랑, 한자어에 대한 이해, 외래어 오남용 방지(교육과학기술부, 2012: 39)',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어휘를 사용

(교육과학기술부, 2012: 57)', '담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활용(교육과학기술부, 2012: 76)'과 같은 어휘 사용의 실제와 관련하여 지도하게 되어 있다.

(1)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가. 초1~2: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나. 초5~6: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다. 중: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라. 고: (12)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2)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가. 초: [4국04-02]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나. 중: [9국04-05]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미 관계'가 (1가)와 (1다)에 중복되고, (1다)에서 '의미 관계'가 '어휘의 유형'과 같은 성취기준으로 묶여 있었으며, (1다)의 '어휘의 유형'과 (1라)의 '어휘의 양상'이라는 용어가 불일치하였고, '어휘의 체계'가 (1나)와 (1라)에 중복되어 있었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미 관계'를 (2가)처럼 분리하였고 '어휘의 체계'와 '어휘의 양상'을 (2나)처럼 하나로 묶었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이제 중학교에서 (2나)를 가르쳐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2009개정 시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어휘 양상을 교육했던 경험이 (2나)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서로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특정 어휘 양상에 대해 가진 배경지식이나 오개념 등을 교사는 어떻게 알고 미리 준비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어휘의 양상'을 교육할 때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어휘의 양상'을 교육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어휘의 양상을 학생들에게 조사해서

발표하게 한 다음,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이 특정 어휘 양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게 되는 질문 속에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오개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휘의 양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미비한 부분까지 드러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질문을 통해 '어휘의 양상'을 교육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성취기준에 '어휘의 체계'가 없었기에, (2나)의 성취기준을 연구함에도 어휘의 체계에 대한 연구는 빠져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학생의 질문 분석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어휘의 양상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각 하위 범주의 개념, 예시, 특성이나 사용의 효과가 포함된다. 각 어휘의 양상에 대해 정리된 내용으로 공부한 학습자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여기거나, 더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을 발견한다면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분석하면 어휘의 양상에 대한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 교사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 교사는 교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휘의 양상을 교육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 연구 범위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어휘의 유형'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어휘의 양상'에 해당한다. 김광해·권재일·임지룡·김무림·임칠성(2001: 313-314)에서는 어휘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기준이 다양하며, 그 분류 결과는 곧 '국어 어휘의 양상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여 어휘의 분류, 어휘의 유형, 어휘의 양상 등을 두루 사용한다. 또한 김광해 외(2001: 313-314)에서는 어휘를 분류한 범주 명칭을 방언 어휘, 은어, 남(여)성어, 공(하)대어, 속어, 완곡어, 관용어, 전문어, 신어, 유행어 등으로 제시한다. 국정 문법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09)에는 어휘의 양상을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은어와 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관용어와 속담, 전문어, 새말'로 제시하였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어휘의 유형'으로 '은어, 전문어, 유행어' 등을 다루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방언, 은어, 비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전문어, 새말, 유행어'를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국정 문법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09)에는 없지만 류수열·전명재·이동민·최동진·정지영·강호정 외(2018), 남미영·허철구·공규택·김아진·류상하·박경하 외(2018) 등의 교과서와 이관규(2004)와 같은 이론서에서 다루는 '유행어'를 포함하였고, 김광해 외(2001)에서 제시한 공(하)대어, 사회 방언, 관용어와 속담은 제외하였다. 공(하)대어는 '높임 표현'으로 분리할 수 있고, 성별어를 포함한 '사회 방언'은 내용이 유동적이며, 관용어와 속담은 '단일 어휘'로 보기 어렵고, '[6국04-0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과 같이 '어휘의 유형(양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체로 별도의 성취기준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박영목·정호웅·유현경·천경록·양기식·나윤 외(2017)에서도 교과서 본문에 "'유행어', '전문어', '은어', '방언', '속어', '금기어', '완곡어', '새말' 등 다양한 유형의 어휘가 있다.(박영목 외, 2017: 132)"라고 하여 이 일곱 가지가 대표적인 어휘의 양상임을 보여 주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

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어휘의 양상을 포괄하기에도 적절하다.

〈표 1〉 2015개정 중학교 교과서 속 어휘의 유형

교학사	금성	동아출판	미래엔	천재(노)
방언 표준어 은어 유행어 전문어	1. 방언 표준어 지역방언 사회방언 성별어 전문어 은어 2 다양한 양상 유행어 금기어 완곡어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 3. 전문어(사회 방언)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 - 전문분야에서 쓰는 어휘: 전문어 - 시대에 따른 어휘: 세대어	1. 지역 방언 표준어와 지역 방언 차이 기술 2. 사회 방언 - 전문어 - 은어 - 사회 방언에는 전문어나 은어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까까 등)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박)**	**창비**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 (세대, 성별, 직업) - 전문어 - 은어, 속어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 - 전문어 - 세대어 - 은어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 - 세대어(유행어?) - 전문어 - 은어	1. 지역에 따라 다른 말 - 지역 방언 2. 집단에 따라 쓰는 말 - 전문어 - 은어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부산 지역의 G중학교 2학년 4개 학급 남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어휘의 양상에 대한 질문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생이 '방언, 은어, 비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전문어, 새말, 유행어' 중 하나를 정해 '개념, 예시, 특성과 효과'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고, 한 학생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나머지 학생들은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였다.[1] 본고에

1)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한 수업이다.

듣기·말하기	⑵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정리하며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쓰기	⑶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⑽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문법	⑻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서 '질문'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더 알고 싶은 것을 발표자에게 요구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연구 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일정

2018년 3월 23일~3월 29일	수업 안내, 주제 배분, 조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정, 교사의 발표 시범
2018년 3월 30일~4월 11일	6~7분간 발표 및 질의응답, 수업 녹화
2018년 4월 12일~	질의응답 내용 질문코딩 후 분석

1차시에 4~5명의 학생이 발표하도록 배분하였다. 학급별, 학생별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달라서 총 23차시에 걸쳐 4개 학급 100명이 모두 발표를 마쳤다. 전사한 결과 총 질문 개수는 582개였다. 이를 QSR사의 NVivo11을 이용하여 코딩한 결과 1차 개방 코딩에서 148개의 노드가 추출되었다. 이 중 30개의 노드에 포함된 251개의 질문은 발표 내용을 놓쳐서 질문한 단순 확인용 질문, 발표자 개인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질문, 개별 어휘의 뜻을 묻는 질문이었고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제외한 질문의 예는 다음 (3)~(5)와 같다.

(3) 단순 확인용 질문이라서 제외된 사례
  가. "새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질문249)
  나. "전문어의 예 좀 한 번 더 알려 주세요."(질문389)
  다. "사투리의 효과 한 번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질문408)
(4) 발표자 개인에 대한 질문이라서 제외된 사례
  가. "당신은 어떤 유행어를 많이 씁니까?"(질문11)
  나. "조사 결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질문30)
  다.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던 은어가 있나요?"(질문39)
(5) 개별 어휘에 대한 질문이라서 제외된 사례
  가. "아까 예 중에 '근디'입니까? '근디'가 뭐야?"(질문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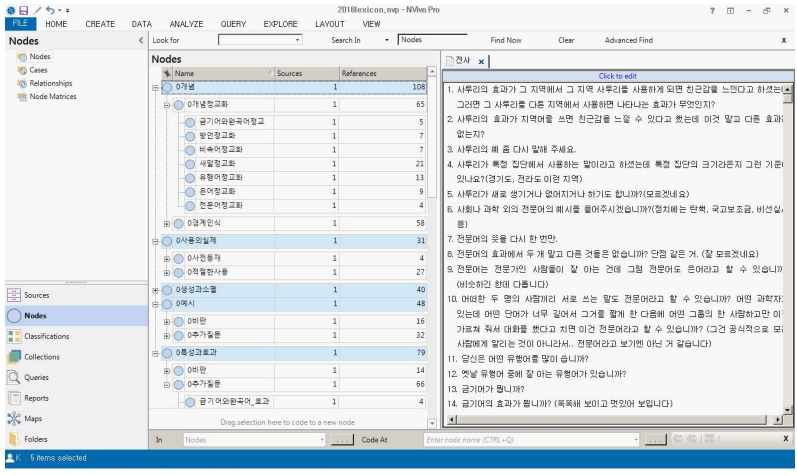
나. “‘누물보’의 뜻이 무엇입니까?”(질문142)

다. “‘마당심’의 뜻이 무엇입니까?”(질문140)

남은 331개의 질문과 118개의 노드는 최종적으로 5개의 대분류와 8개의 소분류로 범주화된 69개의 노드로 정리되었다. 최종 References는 348개인데, 질문의 개수인 331개보다 많은 이유는 하나의 질문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코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6)은 하나의 질문이지만, ‘개념\개념 정교화\새말 정교화’ 노드에도 포함되고, ‘개념\경계 인식\새말과 은어’ 노드와 ‘개념\경계 인식\새말과 유행어’, ‘개념\경계 인식\새말과 전문어’ 노드에도 포함된다.

(6) “새로 생겨난 말이면 모두 새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은어라든지, 유행어라든지 어느 날 과학 실험을 하는데 새로 발견된 물질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모두 새말?”(질문191)

〈그림 1〉은 NVivo11에서 free node를 tree node로 구조화하는 모습이다.



〈그림 1〉 Tree Node 상태의 코딩 단계

본 연구에서는 김은성(2007)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코딩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코딩 작업에서 의미 단위별 노드를 만들고(free node), 다음으로 이것들을 검토하여 잘못 처리한 부분, 의미가 동일하거나 세분되는 것들을 손보아 잠정적인 중간 결과물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다시 재검토하여 위계적으로 구조화한다(tree node).

즉 처음부터 예상되는 질문들을 구조적으로 범주화하여 그 틀에 질문들을 배당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문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시작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구조를 세운 것이다.

2. 연구 결과

학생들이 '어휘의 양상'을 배우면서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범주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생들의 질문 분류

연번	대분류	소분류	질문 수(%)	합계(%)
1	개념	개념 정교화	68(19.54)	140(40.23)
		경계 인식	72(20.69)	
2	특성과 효과	말해지지 않은 특성과 효과	71(20.21)	84(24.14)
		비판적 인식	13(3.92)	
3	예시	더 많은 예시	35(10.06)	51(14.66)
		비판적 인식	16(4.60)	
4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	42(12.07)	42(12.07)
5	사용의 실제	적절한 사용	27(7.76)	31(8.91)
		사전 등재	5(1.15)	

학생들은 첫째, 방언, 은어, 전문어 등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은어와 전문어, 새말과 유행어 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한다. 둘째, 방언, 은어, 전문어 등의 특성이나 효과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교과서나 이론서에서 제시된 것 외에 또 다른 특성이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며 특히 방언의 특성, 비속어의 효과 등으로 제시된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질문한다. 셋째, 방언, 은어, 전문어 등에 속하는 예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특히, 방언, 비속어, 은어의 예로 제시된 어휘가 그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점을 질문한다. 넷째, 방언, 은어, 전문어 등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원리를 궁금해 한다. 방언이 표준어에서 천천히 변이되어 가는 과정이나 유행어가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다섯째, 방언, 은어, 전문어 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용 방안을 질문한다. 일부는 방언, 비속어, 전문어 등이 사전에 등재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

이제 각 어휘별 세부 질문 양상을 살펴보겠다.

1) 개념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분석

〈표 4〉 각 어휘 범주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개념 (140)	**개념 정교화 (68)**	새말 정교화	22	32.35
		유행어 정교화	13	19.12
		은어 정교화	9	13.24
		방언 정교화	8	11.76
		비속어 정교화	7	10.29
		금기어와 완곡어 정교화	5	7.35
		전문어 정교화	4	5.88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개념 (140)	경계 인식 (72)	유행어와 은어	15	20.83
		새말과 유행어	14	19.44
		은어와 전문어	10	13.89
		방언과 은어	5	6.94
		비속어와 금기어	4	5.56
		비속어와 유행어	4	5.56
		비속어와 은어	4	5.56
		새말과 은어	4	5.56
		은어와 직업어	3	4.17
		비속어와 새말	2	2.78
		새말과 외래어	2	2.78
		새말과 줄임말	2	2.78
		새말과 전문어	1	1.39
		은어와 청소년어	1	1.39
		은어와 한국어	1	1.39

학생들은 각 어휘의 범주 명칭마다 주어진 정의보다 더 정교한 정의를 알고 싶어 한다.

(7) 새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 사회에 새로이 등장하는 어휘(최형기 · 조창규, 2013: 161)

가. 이 세상 모든 말은 예전에 없었잖아요. 새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을 때 몇 년 정도까지 이 말은 새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말(새로운, 필자 주)의 기준이 뭡니까?(질문453)

나. 새말로 생겨났지만 지금은 흔해진 말은, 흔해졌는데 여전히 새말로 칩니까?(질문290)

다. 만약에 저희도 태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만약에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한민주'면 '한민주'도 새말이에요?(447)

라. 새말이 새로운 말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새말입니까?(질문455)

(7가)~(7라)의 질문은 (7)의 정의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조선 시대에 생겨나거나 수입된 말은 고려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새말이다. 현대를 기준으로 보면 새말이 될 수 없다. (7가)는 '새로움'의 본질적인 정의를 묻고 있다. (7나)는 '새말이었던 것'을 지금도 '새말'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질문이다. 이론서에 새말로 소개된 말 중 '컴시인, 종생부(김광해 외, 2001: 333)' 등은 지금도 여전히 새말인가? (7다)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에 '인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이고, (7라)는 새말의 용인성에 대한 질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아이젠'의 순화어로 발표한 '눈길덧신'이나 '커플룩'의 순화어로 발표한 '짝꿍차림'도 새말인가?

(8) 유행어: 한 언어 사회에서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표현(이관규, 2004: 225)

가. 유행어가 짧은 시기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시깁니까?(질문265)

나. 유행어가 짧은 시기에 거친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면 유행어가 아닌 겁니까?(질문251)

다. 만일 내가 만들었으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써야 유행어가 되는 겁니까?(질문277)

라. '보이루'나 '가족구' 같은 백만 이백만이 아는 것(전 국민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5분의 1이 아는 것, 필자 주)도 유행어에 포함이 되나요?(질문54)

(8)의 정의에서도 새말과 비슷한 의문이 생긴다. 학생들은 (8가)처럼 '일시적'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한다. (8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유행'을 하긴 했으나 그 유행이 오래(일시적이지 않게) 이어지거나 아예 일상적으로 쭉 쓰인다면 '유행어'인 것인지, '유행어였던 것'인지를 묻는다. (8가)와 (8나)가 시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8다)와 (8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 학교만'의 유행어는 존재하는가? 몇 명 이상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야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가끔씩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행어를 분석한 기사'를 내보낼 때, 어떤 독자나 시청자가 '이 말이 유행어라는데 나는 왜 모르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8다)와 (8라)에서 질문한 '유행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9) 은어: 자기 집단의 이익과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밀어(박덕유, 2017: 168)

가. 저희도 저희끼리 그런 말을 만들면 그것도 다 은어예요? 저희도 저희끼리만 알 수 있는 말을 만들면 · · · (질문33)

나. 친구들 몇 명 이상이어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질문545)

다. 자기네 구성원끼리 쓰면 은어라고 했는데 그 구성원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질문476)

라. 비밀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뜻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건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질문329)

(9가)의 질문은 (9나)와 (9다)로 세분된다. (9나)는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크기이다. 단 둘이서만 정한 비밀어도 '은어'가 되는가? (9다)는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자격이다. 심마니, 도매상인, 범죄조직과 같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집단에서만 은어가 생겨나는지, 아니면 '우리 반', '내 친구들'과 같은 임의의 모든 집단에서 은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학생들은

질문한다. (9라)는 은어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인데, '은어'는 비밀어인데, 책에서 은어를 소개하는 순간 은비성이 사라지므로 그것은 '은어였던 것'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은어가 아니지 않는가?

(10) 방언: 지리적(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분화되면서 생긴 언어 체계(임지룡·이은규·김종록·송창선·황미향·이문규·최웅환, 2005: 213)(괄호는 필자)
가. 사투리가 방언인가요?(질문426)
나. 사투리를 안 쓰는 지역도 있습니까?(질문289)
다. 원래 표준어를 쓰는 지역은 사투리가 없습니까?(질문428)

흔히 '방언'은 '지역 방언'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의 맥락에서도 '방언'은 '지역 방언'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 (10가)에 대한 답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방언' 속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음을 탐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 방언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고 '지역 방언'은 사투리라고 부르면 되는데, '사회 방언'은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 분화(교육과학기술부, 2009: 128)'한다고만 되어 있고, 실제 분류는 〈표 5〉에서 보듯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2] 가르치기 어렵다.

〈표 5〉 사회 방언의 분류 차이

	방언		은어, 속어	금기어, 완곡어	관용어, 속담	전문어	새말 (차용어)
국정 문법 교과서 (2009)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연령, 성별, 사회 집단					

2) 임지룡 외(2005), 이규호(2010), 박덕유(2017) 등이 '국정 문법 교과서'와 같은 분류 방식을 취한다.

<table>
<tr><td rowspan="2">김광해 외
(2001)</td><td colspan="10">양상</td><td colspan="2">신생과 소멸</td></tr>
<tr><td>방언</td><td>은어</td><td>대우
표현어</td><td>속어</td><td>완곡어와
금기어</td><td>관
용
어</td><td>속담</td><td>고사
성어</td><td>전
문
어</td><td>집
단
어</td><td>신어</td><td>사어</td></tr>
<tr><td rowspan="2">구본관 외
(2016)</td><td rowspan="2">지역적
변이</td><td colspan="2">사회적 변이</td><td colspan="3">상황적 변이</td><td colspan="2">통시적 변화</td></tr>
<tr><td>남성어와
여성어</td><td>전문어 혹은
직업어</td><td>공대말과
겸사말</td><td>은어와
속어</td><td>금기어와
완곡어</td><td>관용
표현</td><td colspan="2">신어와 사어</td></tr>
<tr><td rowspan="3">이관규
(2004)</td><td colspan="6">변이</td><td colspan="4">팽창</td></tr>
<tr><td colspan="3">방언</td><td rowspan="2">금기어와
완곡어</td><td rowspan="2">관용어와
속담</td><td rowspan="2">전문어</td><td colspan="2" rowspan="2">새말과
유행어</td></tr>
<tr><td rowspan="2">지역
방언</td><td colspan="2">사회 방언</td></tr>
<tr><td>은어, 속어</td><td>여성어와
남성어</td></tr>
</table>

〈표 5〉에서 보듯이 김광해 외(2001)에서는 사회 방언을 '집단어'라고 하여 '아동어, 성인어, 여성어, 남성어, 청소년어', '전문어, 직업어', '은어'를 포함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편제는 '은어'가 독립된 상태이다.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에서는 '전문어(혹은 직업어)'를 '사회 방언'에 넣었고, 이관규(2004)에서는 '은어, 속어'를 '사회 방언'에 넣었다.

학생들은 '표준어'와의 대조를 통해 방언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나)와 (10다)는 '지역 방언(사투리)'과 '표준어'의 관계를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다.

(11) 비속어: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말', 비어는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로 … '비어'와 '속어'를 합친 말인 '비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구본관 외, 2016: 169)

가. 우리가 흔히 욕한다라고 말한다면 비속어를 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욕 안에 비속어가 들어가는지 비속어에 욕이 포함되는지?(질문352)

나.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비속어입니까?(질문347)

비속어 학습에서 학생들의 질문은 대부분 (11가)처럼 '욕'과 '비속어'의 차이를 묻는 것이었다.(질문 7개 중 5개) 그 외에 (11나)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11가)의 연장선상이 있다. '방언'을 이해할 때 '표준어'가 전제되는 것처럼 '속된 말, 점잖지 못한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고상한 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고상한 말'에 익숙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대부분 '속된 말'이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이미 '속된 말'인 줄 모르고, '속된 말' 속에서 더 속되고 더 점잖지 못한 말로 '비속어'를 이해하려다보니 자꾸 '욕',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등으로 비속어를 정의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12) 금기어: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게 하여 입 밖에 내기를 싫어하는 말 (최형기·조창규, 2013: 159)
완곡어: 금기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의미 중립적인 말(이규호, 2010: 176)
가. 마음에 꺼려서 하지 못하는 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질문581)
나. 금기어를 완곡어로 바꿨을 때, 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정해 놓고 쓰는 겁니까?(질문47)
다. 완곡어가 없는 금기어가 있습니까?(질문57)

(12가)는 '금기'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이규호(2010: 176)에서는 '죽음, 질병'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말, '배설, 성'과 같이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두렵고 불쾌한 말을 모두 '금기시'하는 것은 아니다. '금기'는 문화와 매우 큰 관련이 있으므로 현대 사회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통문화'에 기반한 '금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관규(2004: 218-219)에서 '식모, 가정부, 파출부'의 예를 들면서 '식모'가 금기어는 아니지만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완곡어가 생겨난다고 하였는데, '식모'라고 말해도 '마음에 꺼리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이 금기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12나)와 (12다)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가리키는 '병신'은 확실한 금기어인데, 그 완곡어가 '장애자'인지 '장애인'인지 '장애우'인지에 대한 문제도 (12나), (12다)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누군가가 임의로 이제부터 '장애우'라고 부르자고 한다면 곧바로 완곡어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널리 퍼져야 완곡어가 되는 것인가? 듣는이가 '장애자'도 '장애인'도 '장애우'도 듣기 싫어한다면, 도대체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할 것인가?

(13) 전문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개념을 담고 있는 어휘(김광해 외, 2001: 328)

가. 아까 전문어의 예 중에서 음악 분야에 '크레셴도'라는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건 전문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전문어의 예에서 제외가 됩니까?(질문156)

나. 어떠한 두 명의 사람끼리 서로 쓰는 말도 전문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너무 길어서 그거를 짧게 한 다음에 어떤 그룹의 한 사람하고만 이걸 가르쳐 줘서 대화를 했다고 치면 이건 전문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질문10)

전문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 (13가)는 '은어'와 마찬가지로, 전문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여전히 전문어인가 하는 질문이고 (13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특정 분야'의 범위 또는 집단의 크기를 묻는 질문이다.

(10)과 (11)에서 '방언'을 이해할 때 '표준어'와의 대립을 통해 이해하려 하거나, '비속어'를 이해할 때 '욕'과의 구분을 시도하는 등, 학생들은 다른 어휘와의 대립 관계를 통해 각 어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7)~(13)의 정의들을 실제 단어들에 적용해 보면 쉽지가 않고 이 단어가 유행어인지 은어인지 비속어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하게 된다. 바로 이 경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질문이 20.69%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유행어와 은어의 차이(20.83%), 새말과 유행어의 차이

(19.44%), 은어와 전문어의 차이(13.89%)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몇몇 학생은 '직업어', '외래어', '줄임말', '청소년어'처럼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어휘 범주들과도 비교를 시도한다. 이는 모두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다. 비율이 높은 세 가지만 학생 질문을 보기로 한다.

(14) 가. '갑분싸', '보이루' 같은 게 유행어에 더 가깝습니까, 은어에 더 가깝습니까?(질문164), '갑분싸'나 '가즈아'는 보겸이라는 BJ에게서 유행되었는데 보겸을 안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어가 되지 않습니까?(질문173)

나. 새말은, 새말의 뜻은 유행어랑 비슷한데 새말이 유행어에 포함됩니까?(질문299)

다. 경찰에서 무전에 쓰는 용어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특정 직업에서 쓰는 단어라서 전문어가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은어가 되는지?(질문480)

(14가)는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질문이다. 청소년 집단에서 하나의 은어가 유행처럼 퍼져 나간다면 이것은 '은어'인가 '유행어'인가? 이도영 외(2018: 77)에 청소년 자녀들이 '생파(생일 파티)', '생선(생일 선물)'을 말하는데 중장년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만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에서 '생파'와 '생선'을 '은어'로 본다.[3] 학생들은 이 어휘들을 '줄임말'이라고 인식하거나 '청소년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유행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청소년층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사회 방언을 '은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관규(2004: 225)에 따르면 유행어와 새말의 발생 동기는 근본적으로 같은데, 유행어는 지속성이 없고, 풍자, 해학, 비판, 신선감이 느껴지는 특성이 있다. 그보다 근본적인 차이로는 유행어가 반드시 '새로운 말'일 필요는

3) 활동(3) 아버지와 두 딸의 대화를 보고 은어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적어 보자.(이도영 외, 2018: 77, 밑줄 필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뤠(그래)?”, “부자 되세요!”, “김 기사, 운전해.” 같은 유행어는 모두 본래 있던 말이다. 이것들을 ‘새말’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새말과 유행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가 유용할 것이다.

〈표 6〉 새말과 유행어 구분 틀

	새로 생긴 말	**원래 있던 말**
유행한 말	유형1	유형2
유행 안 한 말	유형3	유형4

이에 따르면 2017년 유행어 중에서 “이거 실화냐.”는 유형2에 속할 것이고 “팩폭”은 유형1에 해당할 것이다.

현실에서 전문어와 은어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는 전문어가 ‘직업어’에 가까울 때이다.

황비홍 너 뭐냐? 중화루 철가방 강대오냐? 위장취업 좌경 학생 강문모냐? 아니면 경찰 스파이냐? 도대체 너 뭐냐?

대오 형, 나야 나 강대오. 영화반점 강철가방, 강대오!

황비홍 우둘짜둘대영삼 부탕슬쌀기볶 야끼볶둘삼삼칠 수거삼철물 득칠천동사!

대오 대영빌딩 삼층에 우동 두개 짜장 두개, 부동산에 탕수육 유산슬, 쌀집에 기스면 볶음밥, 야끼만두 볶음밥 두 개 삼백 삼십 칠번지, 철물점에서 그릇 세 개 수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칠천원 받아와!

황비홍, 대오를 보다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황비홍 학생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영화반점 강철가방 강대오가 맞습니다.

(육상효,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밑줄 필자)

위의 시나리오에서 밑줄 친 ‘우둘짜둘대영삼’은 본 연구의 분류에는 없

지만 '직업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을 '전문어'와 '은어'로 나누려 할 때, 학생들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은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 만든 말이므로 '전문어'에 가까우나, 다른 집단 사람은 못 알아듣고 같은 집단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므로 '은어'라고 할 수도 있다.

2) 특성과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분석

〈표 7〉 각 어휘 범주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특성과 효과 (84)	말해지지 않은 특성과 효과 (71)	방언 효과 추가	12	17.14
		유행어 효과 추가	12	17.14
		비속어 효과 추가	11	14.29
		은어 특성 은비성 상실	7	10.00
		방언 지역 특색	6	8.57
		은어 효과 추가	6	8.57
		전문어 특성 추가	6	8.57
		새말 효과 추가	5	7.14
		금기어와 완곡어 효과 추가	4	5.71
		전문어 효과 추가	2	2.86
	비판적 인식 (13)	비속어 효과 비판	5	42.86
		완곡어 효과 비판	4	28.57
		유행어 효과 비판	2	14.29
		금기어 특성 비판	1	7.14
		전문어 효과 비판	1	7.14

각 어휘 범주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는 (가)처럼 발표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 더 많은 특성과 효과를 질문하거나 (나)처럼 소개한 특성과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질문하였다.

(15) 말해지지 않은 특성과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가. 사투리의 효과가 지역어를 쓰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효과는 없는지?(질문2)

나. 단점에 개성 없고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썼을 때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까?(질문484)

다. 단점에 인격과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나쁜 영향이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질문117)

(15나)와 (15다)와 관련하여 특히 은어에서는 '은비성 상실'이라는 특성에 대해, 방언에서는 '지역 특색'이라는 특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었다.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16) 은어와 방언의 말해지지 않은 특성과 효과

가. 은어가 다양한 집단에서 자신들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은어로 쓰인 단어가 모두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질문138)

나. 저희에게 사투리를 알려 주시러 나왔잖아요. 전라도가 노래를 부르듯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질문243)

그런데 학생들은 '비속어, 완곡어, 유행어' 등의 특성과 효과를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질문도 한다.

(17) 말해진 특성과 효과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질문 양상

가. 비속어의 단점은 상대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속어에는 '존예, 개~' 같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기분 안 좋게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질문348)

나. 어차피 뜻은 똑같은데 완곡어로 바꾼다고 기분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질문221)

다. 그렇게 되면(=개성이 없어 보인다면, 필자 주) 장점으로 독특하고 새로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질문482)

(17가)는 비속어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하여 반박하는 질문이다. (17나)는 '병신'을 '장애인'이나 '장애우'로 바꿔 불러도 결국 의미는 같은데 정말로 불쾌감이 누그러지는지를 비판하는 질문이다. 김광해 외(2001: 322)에서도 "완곡 표현이던 말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다시 금기어에 결부되어 있던 부정적 연상이 환기되므로, 다시 새로운 완곡 표현을 모색하게 된다.(김광해 외, 2001: 322)"라고 하였으므로 학생의 비판이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7다)는 유행어 사용이 효과 중에 '독특하고 새로워 보인다.'와 '개성 없어 보인다.'가 서로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는 질문이다.

3) 예시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분석

〈표 8〉 각 어휘 범주의 예시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예시 (51)	비판적 인식 (16)	은어 예시 비판	8	50.00
		비속어 예시 비판	4	25.00
		금기어와 완곡어 예시 비판	3	18.75
		방언 예시 비판	1	6.25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예시 (51)	더 많은 예시 (35)	전문어 예시 추가	10	28.57
		유행어 예시 추가	9	25.71
		비속어 예시 추가	6	17.14
		새말 예시 추가	4	11.43
		은어 예시 추가	3	8.57
		금기어와 완곡어 예시 추가	2	5.71
		방언 예시 추가	1	2.86

각 어휘 범주에 속하는 예에 대한 질문도 14.66%가 있었는데, 그중 68%는 특정 어휘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과 더 많은 예를 알고 싶어 하는 추가 질문이었다.

(18) 더 많은 예시 질문

가. 수업 시간에 배운 원소 기호나 이런 것도 전문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질문523)

나. 축구 전문어 저거 네 개 말고 다른 것 아는 것 있습니까(질문527)

다. '싱하'라는 사람이 많은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질문298)

그리고 학생들은 발표자가 소개한 예시들이 해당 범주의 개념 정의에 어긋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뜻과 다를 때 이를 비판하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는데, 학생들 자신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비판적 인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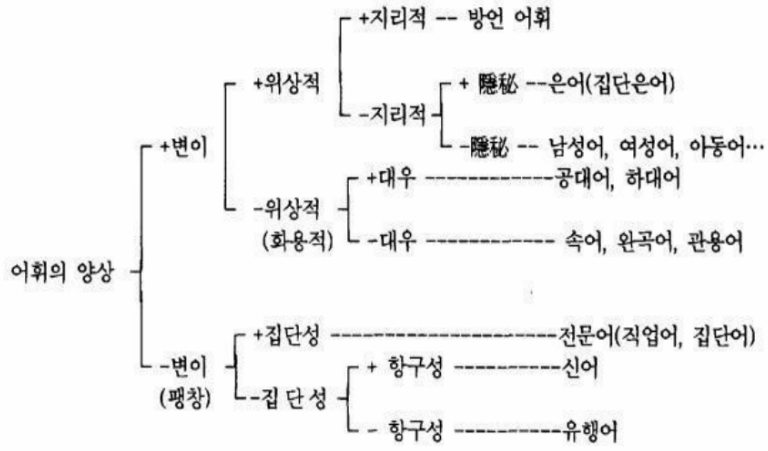
(19) 예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질문

가. 은어가 어떤 집단에서 서로 비밀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라고 들었는데, 왜 '보이루'나 '갑분싸'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질문531)

나. 제가 아는 '꼰대'라는 뜻은 선생님인데 아까 발표에서는 '아버지'라고 돼 있던데 제대로 조사한 거 맞습니까?(질문107)

다. '후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 금기어와 완곡어라고 했는데 '후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뒤떨어진 나라고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본가요?(질문210)

이런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어휘 양상'의 분류와 '어휘'의 분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이루', '꼰대', '후진국'을 분류하는 것은 '어휘'를 분류하는 일이다. '어휘 양상'의 분류는 김광해 외(2001), 임지룡 외(2005), 이관규(2004) 등에서 공통으로 인용되는 〈그림 2〉나 이광호(2008: 39)에서 새로 제시된 〈그림 3〉 정도가 제안되어 있다.



〈그림 2〉 어휘 양상의 분류표1

[+변이형]
  [+개인형] ; 비속어, 연령어(유아어/아동어/청소년어/장년어/노년어), 관용어, 성별어(남성어/여성어), 동의중복어, 유행어
  [-개인형] ; 방언, 은어, 완곡어, 공하대어(공대어/하대어), 전문어, 유행어

[-변이형]
  [+개인형] ; 유행어
  [-개인형] ; 신어, 전문어, 유행어

〈그림 3〉 어휘 양상의 분류표2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보이루', '꼰대', '후진국'을 각각의 해당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분류는 '어휘의 양상'을 분류한 것일 뿐, 개별 어휘를 분류한 것이 아니다. 즉 '보이루', '꼰대', '후진국'이라는 어휘가 있고, 그것들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때, 그 '양상들'을 분류한 것이므로, 개별 어휘는 그 어느 양상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4) 어휘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분석

〈표 9〉 각 어휘 범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생성과 소멸 (42)		유행어 생성·소멸	13	30.95
		방언 생성·소멸	7	16.67
		새말 생성·소멸	7	16.67
		은어 생성·소멸	6	14.29
		비속어 생성·소멸	4	9.52
		금기어와 완곡어 생성·소멸	3	7.14
		전문어 생성·소멸	2	4.76

어휘의 유형이나 양상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어휘의 다양한 변이나 팽창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귀납된 결과 이전에,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왜 어떤 말들은 사라지는가?'라는 생성과 소멸의 기제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어요?"라는 궁금증을 한 번씩 느껴보는 것과 비슷하다.

(20) 어휘의 생성에 대한 질문 양상

가. 유행어는 어떻게 유행됩니까? 단지 유명한 사람이 쓰면 그게 유행어가 됩니까?(질문439)

나. 새말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질문334)

다. 사투리랑 표준어랑 연관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게 많은데 그거는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질문144)

라. 상인이 쓰는 은어 중에 일은 뭐 이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질문324)

(21) 어휘의 소멸에 대한 질문 양상

가. 유행어가 왜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질문56)

나. 새말로 생겨났다가 사라진 말이 사라진 이유가 사람들이 잘 안 써서 사라진 건가요?(질문188)

다. 이거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지방에서 표준어가 아닌 말을 더 이상 안 쓰면 사투리는 없어지는 겁니까?(질문415)

(20가)처럼 '유행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희극 배우들이 유행어를 남기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말은 의도치 않게 유행하고 어떤 말은 아무리 밀어도 '억지 유행어 강요'라는 비난만 받는다.

(20나)는 새말이 생기는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외국어에서 들어온 것, 정책적으로 만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선호출기를 뜻하는 '삐삐'나 공기포장재를 뜻하는 '뽁

뽁이'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20다)에서 방언이 '하나의 언어에서 점차 변이된 형태'라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무-무시', '가위-가시개' 등은 납득할 수 있으나 '사투리랑 표준어랑 연관성이 전혀 안 보이는' 어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는 뜻이다.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방언의 어휘들은 표준어에서 지역별로 분화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언 어휘들이 표준어로 인해 동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이 질문은 의미가 있다.

(20라) 경동시장 청과물 상인들이 '일'은 '먹주', '이'는 '대', '삼'은 '삼패', '사'는 '을씨'라고 한다면(김광해 외, 2001), 이 상인들이 어느 날 어느 곳에 모여서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었을까? '일'을 '먹주'라고 부르자는 발상은 어디서 왔을까? 흡연 청소년의 은어 중 '담배'를 '코'라고 하는데, 니'코'틴설과 타바'코'설이 있지만, 누가 언제 "담배를 '코'라고 부르자."라고 정했는지는 알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5) 어휘의 실제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분석

〈표 10〉 각 어휘 범주의 실제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양상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사용의 실제 (32)	적절한 사용 (27)	비속어 줄이는 방법	9	33.33
		비속어 쓰는 이유	6	22.22
		은어 효과 보완책	3	11.11
		유행어 적절한 사용 방안	2	7.41
		전문어 적절한 사용 방안	2	7.41
		전문어 쓰는 이유	2	7.41
		금기어 없애고 완곡어만 쓰기	1	3.70
		유행어 쓰는 이유	1	3.70
		은어 미래 사용률 궁금	1	3.70

대분류	소분류	노드	질문	비율(%)
사용의 실제 (32)	사전 등재 (5)	방언 사전 등재	1	20.00
		비속어 사전 등재	1	20.00
		새말 사전 등재	1	20.00
		유행어 사전 등재	1	20.00
		전문어 사전 등재	1	20.00

학생들은 어휘의 양상에 대해 공부할수록 이것이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의 '실제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도한 성취기준[4]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서 달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학생들은 비속어를 줄이는 방법에 가장 관심이 많다(33.33%). 이러한 질문들은 발표자가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다 같이 의논해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면 학생들이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질문들이다.

(21)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에도 사용하는 이유

가. '미친'이나 '씨발, 닥쳐, 개새끼' 같은 건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용합니까?(질문489)

나. 음악의 전문어 중에 '크레셴도'처럼 점점 세게라고 쉬운 말로 순화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말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질문161)

(22) 적절한 사용 방안

가. 비속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질문560)

나. 은어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 같은 게 있습니까?(질문133)

---

4) 2009개정: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2015개정: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비속어’, ‘은어’, ‘유행어’, ‘전문어’, ‘금기어’ 등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대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22)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질문한다.

그와 동시에, (21)처럼 ‘비속어’, ‘은어’, ‘유행어’, ‘전문어’, ‘금기어’ 등이 그러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그런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묻는다. 안 좋은 말이면 그냥 안 쓰면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왜곡된 사회 모습을 학생들이 질문으로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결국 이러한 다양한 어휘의 양상과 유형들이 모두 동등한 지위나 권위를 누리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전 등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표현된다.

(23) 가. 국어사전에 실린 새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질문300)
나.비속어들이 많이 쓰이면 국어사전에 실리게 됩니까?(질문496)
다. 전문어는 국어사전에 나오나요?(질문399)

‘금기어, 완곡어’는 형태 면에서 표준어다워 보이기에 사전 등재 여부를 묻지 않는다. ‘새말’은 잠정적인 형태이므로 사전 등재 여부가 궁금해질 것이고, ‘방언, 비속어, 유행어’는 예시 어휘가 척 보기에도 비표준어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 등재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전문어’의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어휘들은 사전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적확한 질문이라 하겠다.

III. 어휘 양상 교육을 위한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양상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겠다. 어휘의 양상 분류에 대한 지식적 내용은 이론서와 교과서에 있지만, 그것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점을 질문하는지, 곧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를 미리 안다면 교사는 적절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1) 어휘 양상의 개념 정교화

첫째, 각 어휘의 양상마다 '개념 정의'에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말이 새말인 채로 유지되는 기간, 유행어가 유행하는 범위, 은어에서 말하는 '집단'의 구체적인 양상, '전문 분야'의 범위, '금기시'라는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개념 정의'에 모두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은 학생들이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개념 정의에서 실제 어휘들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자료에서 개념 정의가 귀납된 것이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정교한 개념 정의를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이 해당 어휘 양상에 속하는 어휘들을 검토하면서 협력을 통해 정의를 보완해 가는 수업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귀납식 수업에 대한 인식은 '특성이나 효과'를 수업할 때에도 필요하다. 각 어휘 양상의 특성이나 효과 역시,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비속어는 가까운 사이에서 친근감을 준다는 특성이 있는데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이 비속어를 말해도 기분이 나쁜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교사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실제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생들은 어휘 양상을 '태그'가 아니라 '카테고리'의 개념으로 받

아들인다. 학생들은 특정한 어휘가 유행어에 속하는지 은어에 속하는지, 새말에 속하는지 유행어에 속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그 질문의 전제는 카테고리의 개념으로, 한 어휘는 한 분류에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휘의 양상은 카테고리보다는 '태그'의 개념에 가까움을 인식해야 한다. 태그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 어휘를 여러 분류에 포함시킬 길이 생긴다. 즉 '갑분싸'가 유행어냐 은어냐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사회 방언의 연령어 또는 세대어)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은어'인 면도 있고, '유행어'인 면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휘'의 분류와 '어휘 양상'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 '양상'들을 분류한 층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방언', '유행어'는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있다는 결과가 중심이 된다. '은어', '전문어', '새말'은 은비성, 효율성 등 생성 의도가 중심이 된다. '금기어', '비속어'는 심리나 문화에서 기인하므로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층위의 차이를 교사가 이해하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꾸려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은어'를 만든다고 할 때, 완전한 '새말'로 은어를 만들 수도 있고, '방언'으로 은어를 만들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외래어로 만들 수도 있고 줄임말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은어는 고상한 말은 아니므로 '비속어'까지는 아니라도 어쩔 수 없이 '속어'적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업에서는 여러 어휘 자료들을 방언, 새말, 금기어(완곡어) 가운데 하나로 정리하고 끝내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어휘를 놓고도 여러 맥락에서 어떤 어휘의 양상을 띠는지를 탐구하는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2) 어휘의 생성과 소멸 원리

셋째,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어휘의 양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궁금해한다. 정책적으로 '새말'이나 '완곡어'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언중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분명한 답을 찾기가 어

려운 질문이므로 교사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질문 중 '새말이었던 것'과 '새말인 것', '은어였던 것'과 '은어인 것', '방언이었던 것'과 '방언인 것' 등을 구별하는 질문은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다. 만약 한때 새말이었던 것을 모두 새말로 인정한다면, 이 세상 모든 말이 새말의 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은어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서 모두가 알게 된다면, 은비성을 상실하므로 지금은 은어가 아닌 것인지, 여전히 은어인 것인지를 교사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많은 새말이 생겨나는데, 어떤 새말은 정착하여 일상어가 되고 어떤 새말은 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지, 그 결과가 아닌 그 이유나 원리를 궁금해한다. '마름모'는 살아남았는데 '흰피톨'은 사라진 이유를 '마름모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흰피톨은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그렇다.'라고 말해 봐야 동어반복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나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답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경쟁 어휘의 존재나 해당 어휘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나 소속한 사람들의 특성 등을 동원하여 탐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면, 언어 순화를 하거나 완곡어를 만들어 낼 때, '더 널리 쓰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어휘를 만드는 데에 참고할 수가 있다. '멘토'를 '인생길잡이'로 순화해도 아무도 쓰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 방언의 경우, 학생들은 표준어와의 대립 관계와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의 특색을 궁금해한다. 지역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를 옳고 그름이나 힘의 우위를 전제한 평면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라, '표준'이라는 추상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역 방언을 수업할 때에는 영상 자료나 녹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듣고 비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3) 어휘의 다양한 예시

다섯째, 학생들은 어휘 양상을 교육할 때 동원하는 예시 어휘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예를 알고 싶어 한다. 교사는 최대한 많은 예를,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양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실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4) 어휘 사용의 실제

여섯째, 학생들은 어휘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고 싶어 한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안 하면 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쓴다. 아이들은 그러한 심리를 이해를 못 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교사는 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국어를 망가뜨린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며 학생들도 건전한 언어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어휘의 양상을 교육할 때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분석하여 어휘의 양상을 교육할 때 유의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첫째,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 하고, 각 어휘 양상의 유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한다. 둘째, 각 어휘 양상의 특성과 효과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셋째, 각 어휘 양상에 속하는 예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넷째, 어휘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원리를 궁금해한다. 다섯째, 각 어휘 양상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용 방안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첫째, 학생들이 각 어휘 양상의 개념 정의를 정교화하고 특성과 효과를 덧붙여 나갈 수 있도록 실제 어휘 자료들을 탐구하는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비교하고 분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예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어휘들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반의 유행어를 만들기', '국립국어원 말터에 언어 순화 어휘 제안하기' 등의 수업을 구안해야 한다. 넷째, 어휘의 양상 교육이 실제 언어생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본고에서 '방언, 은어, 속어, 금기어와 완곡어, 유행어, 전문어, 새말' 등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기초를 잡은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 것만 다룬 한계가 있다. 현대의 어휘 양상은 '번역 투', '일본어 투', '일베체', '급식체', '통신어', '외계어', '줄임말', '야민정음' 등 걷잡을 수 없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휘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어휘'의 수준만이 아니라 통사 구조, 문체와 가지는 관련성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 7. 31. 투고되었으며, 2018.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8. 9.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고등학교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2012),『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2015),『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한국어 문법 총론II』, 서울: 집문당.

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원진숙·이관규·김정우·이경화·전은주·김창원·강보선·권순희·송영빈·박동열·신동광·김호정·김중신·조형일·이기연(2014),『어휘교육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광해·권재일·임지룡·김무림·임칠성(2001),『국어지식탐구』, 서울: 박이정.

김은성(2007),「학습자들은 왜 문법학습을 꺼리는가?」,『국어교육연구』40, 35-72.

김진수·이경옥·박채형·이경숙·박현숙·박수진·강양희·박상희·정대승·김봉규·오경준·강송연(2018),『중학교 국어 1-1』, 서울: 비상교육.

남미영·허철구·공규택·김아진·류상하·박경하·백덕현·양연규·여의기·이푸르니·임성규·임영규·전혜옥·정태기·정형근·황재진(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교학사.

노미숙·주진택·안수진·김호태·신해연·황희종·소정섭·장선영·강영미·류신형·노수경(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천재교육.

류수열·전명재·이동민·최동진·정지영·강호정·박용진·나미나·박인규·박수현(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금성출판사.

박덕유(2017),『이해하기 쉬운 문법교육론』, 서울: 역락.

박영목·정호웅·유현경·천경록·양기식·나윤·전은주·성난주·안순숙·박의용·임지은·백정운·신수정·남영민·이혜진(2017),『중학교 국어 ③』, 서울: 천재교육.

박영목·정호웅·이승환·성난주·안순숙·임지은·남영민·예가현·배재성·이정분·전보영(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천재교육.

신유식·정미선·이필규·김영찬·전경원·윤인희·박선주·김정희·이은화·나단비(2018),『중학교 국어 1-1』, 서울: 미래엔.

이관규(2004),『학교 문법론(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월인.

이광호(2008),「어휘의 양상 분류」,『언어과학연구』45, 23-41.

이규호(2010),『학교문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도영·강경일·강애라·김미영·김수란·김영석·김외곤·김태은·박승환·양은희·오윤주·이지영·이진경·한명숙(2018),『중학교 국어 1-1』, 파주: 창비.

이삼형·김창원·정재찬·최홍원·김근수·이정원·김서경·오요한(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지학사.

이은영·권정아·박성희·허단비·이민희·이은정(2018),『중학교 국어 1-2』, 서울: 동아출판.

임지룡·이은규·김종록·송창선·황미향·이문규·최웅환(2005),『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서

울: 박이정.
최형기 · 조창규(2013), 『예비 교사를 위한 국어 문법 교육 강의』, 서울: 태학사.

초록

학생 질문을 통해 본 어휘 양상 교육의 한 문제

김중수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분석하여 어휘의 양상을 교육할 때 유의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첫째,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 하고, 각 어휘 양상의 유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한다. 둘째, 각 어휘 양상의 특성과 효과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셋째, 각 어휘 양상에 속하는 예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넷째, 어휘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원리를 궁금해한다. 다섯째, 각 어휘 양상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용 방안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첫째, 학생들이 각 어휘 양상의 개념 정의를 정교화하고 특성과 효과를 덧붙여 나갈 수 있도록 실제 어휘 자료들을 탐구하는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비교하고 분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예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어휘들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반의 유행어를 만들기', '언어 순화 어휘 제안하기' 등의 수업을 구안해야 한다. 넷째, 어휘의 양상 교육이 실제 언어생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핵심어 어휘의 유형, 어휘의 양상, 어휘의 체계, 어휘 교육, 학생의 질문

ABSTRACT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of Lexicon Phase through Students' Questions

Kim Jungsu

In this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 of classification of lexicon phase are found by analyzing the students's ques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xtbooks and theoretical books do not elaborate on tne definition of classification of lexicon phase. Second, students need more than explanation and examples from textbooks. Third, students are curious about the reason why the lexicon phases take different forms. These are suggestions for the education of classification of lexicon phase. First, the teachers should prepare a myriad of vocabulary materials for students to analyze and to classify the lexicon phases. Second, the teachers should design the clas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generation and loss of the vocabulary. Third, the teacher should construct the class to improve the students' practical language.

KEYWORDS Aspects of Vocabulary, Questions of Students, Classification of Lexicon Phase, Teaching Lexicon